

산업보건과 보건관리자



인천제철(주) 부속의원장 이 윤 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창설된 지 2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자축회를 가지면서 전임보건관리자 10년 반을 회상하는 뜻에서 몇마디 실록을 할까 합니다.

국군 군의학교 교장직을 마치고 군에서 제대하여 75년 8월에 인천제철주식회사 송요찬 사장 슬하에 보직을 받게 됨으로써 제 2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그당시 현대사회에서 지양되어야 했던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는 산업보건업무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무 기본지식도 없이 받을 디더놓은 산업보건분야에 당시 송요찬사장께서는 「앞으로도 20~30년 경과하여야만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75년도에 특수검진 결과를 받고 보니 무엇부터 착수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았고 시설개선은 어느 범위에서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그때 군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유해환경 사항과 신체검사 결과에서 나온 질병현황과 예방대책 및 강조사항을 발췌하여 부리핑하였던 그당시를 회고해 보니 경영자의 관심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해결되어져 가는 문제점들을 이제는 다소 통달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물론이거니와 기

업에 있어서도 자금의 유통이 원활할 때 산업보건분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산업보건사업에의 범위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일기업에 10년이상 근속하다보니 그 기업에 대한 변천과 그 주변의 변화도 보고 듣고 느끼며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도 22년간의 단계적인 발전도 있었지만 전임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기업도 여러 단계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근무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간에 6차의 대표이사 교체가 있었고 그때마다 새로 부임하는 대표이사는 업적분야와 자금회전에만 몰두케 되다보니 산업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한 건강과 유해인자에 관련된 질병예방책에 대한 것은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힘들고 어려운 근로자일수록 이직율이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근로자들에게 보건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주시하여 보건교육의 강조성이 우선 선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에만 치중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거나 교육시간의 배려가 묵살되어 버리거나 소기업에서는 전혀 고려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념은 교육수준과도 관계

가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한 예로써 보건보호기구 착용지시에 대한 순응도도 학력수준과 비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7년 7월부터 국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자기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으나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 비전임 보건관리자는 소속사업장의 종업원과 건강상담을 통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의 진료의사는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소외시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친근감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꾸준하고도 선도적인 대화와 건강교육이 가일층 이루어져야 산업근로자와의 신뢰를 찾고 친근감이 생겨 조금이라도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결과를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추세를 살펴보면 안전사고 예방에 90% 이상 치중하여 손실을 막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나 산업보건에는 비중이 약한 것도 요사이 모순된 실정이라고 느끼는 바입니다.

소기업일수록 작업환경조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유해인자 또는 유해부서 근무자로서 특수검진 대상자 운운하게 됨은 자기네 기업의 치부나 드러내게 된다는 공포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기업주들의 긍정적인 인식으로의 전환과 적극적인 제도상의 뒷받침에서 진일보 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체검사관이나 수검자와의 상담과 사후조치가 미약하여 옛날부터 신체검사를 실시하나마나라는 악평을 듣는것도 사업주가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들로서 다소나마 무책임했던 점을 반성하고 보완해야 할 시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보건관리자 임무중 첫항에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부 여부 판정란이 있는데 이직자가 50~60% 있는 기업은 기업대로 복잡 다난하고 소기업은 사후조치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유

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후로는 이런 점들이 점차 개선되어져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보건관리자는 끊임없는 추적과 분류와 사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보건분야는 일반 타의료분야와 밀접한 관계중에도 전문분야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들도 산업보건에 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질병과 유해요소로부터 해방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산업보건이라면 경영자와 보건관리자, 주무관청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상호 긴밀한 협조, 이해, 추진을 목표로 세워 한가지씩 점차 해결해나갈 때 의의가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를 해오는데 지켜봐 온 점을 토대로 하여 현재 보건관리사업 수행상의 느낀 관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업에 한해서 전임보건관리자를 보직해 되어있는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인 감동이 될 수 없다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산간벽지나 중소기업도 못되는 소단위 기업의 산업보건사업이 허다한 맹점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관리자로서 재삼 느끼는 것은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추진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둘째, 작업환경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셋째, 직업병환자를 위시하여 일반질환자에게도 적극성을 띤 건강상담지도와 건강유지의 선도가 필요하며 넷째, 신입사원은 물론이고 반장, 직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에게 산업보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 회사에서는 대규모 시설개선에서부터 소규모 시설개선까지 점차적으로 개수시키도록 하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서 생산위주의 노동시간 연장을 지양하고, 작업시 보호기구의 활용도를 높이며, 산업보건에 관한 필수적인 교육을 반복 이행하여야 되

겠습니다.

전임보건관리자라는 직분은 그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의사로서 의료진료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간을 나누어 두서너가지 일을 수행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실상의 보건관리 분야와 진료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건 구성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 사업장 전임보건인력의 필요성

보건관리자나 담당자의 일상배치는 대규모 기업일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주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서 산업보건업무 추진의 향상도 달라지리라 생각되나 대부분 안전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현 사업장의 여건에서의 보건업무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시설 투자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며 보건담당자가 되는 간호원은 간호원다운 인내와 자상함을 지녀야 하며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친절과 책임있는 업무 수행에 기질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력의 소지자라야만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관계자로서 취임초에는 의욕을 갖고서 업무에 임하게 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로 변화가 되고 회사에서 이익분야에만 관련하여 요구하는 일반건강을 위한 질병치료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관계자로서 자신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의 업종에 따르는 대략적인 작업환경과 특수검진, 일반검진에 대한 결과는 파악하고 있으나 그에 의한 종합평가나 개선점등을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반영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나 보건담당자가 그 기업내에 보직하고 있는 경우는 건강에 대한 화제를 충분히 모을 수 있고 작업환경에의 유해인자, 유해부서, 직업병, 일반질병등의 예방책, 개선책등 강조사항이 수시로 논의되도록 여건

이 조성되므로 그 기업의 산업보건사업에 진일 보적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관리자들이 근로자 건강유지에 노력하는 이상으로 경영주가 투자하는 관심도는 더욱 크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생산위주의 기업운영 방침에서 자칫하면 등한시 하기 쉬운 산업보건분야의 명맥을 유지토록 하며 회사의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종업원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경영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대기업을 막론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임보건관리자나 비전임보건관리자나 보건담당자는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자세만 갖춘다면 절대적인 위치에서 전종업원과의 대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주는 보건관리자,담당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그들의 조언에 귀기울여 사업장의 유해작업환경 및 부실환경등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기관은 그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마련과 사후대책은 물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펴야겠으며, 보건관계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